CPTED 활용한 시책으로 시민안전 확보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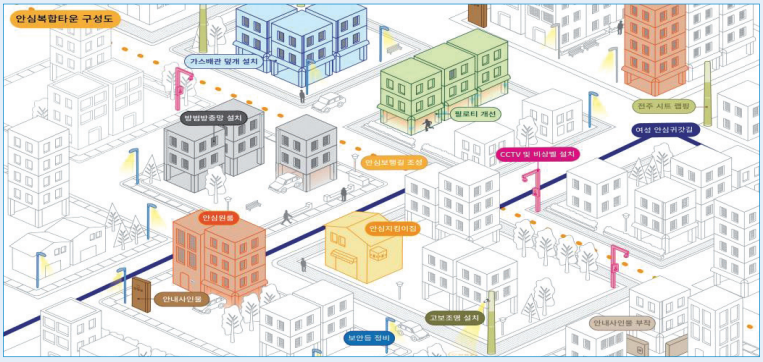
부산시 도시디자인과
2022.1.20.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
2022.2.6.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2022.2.15.

부산시, 전국 최초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부산시가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룸 밀집 지역인 금정구 장전동과 남구 대연동에 '여성친화형 1인 가구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기존 1세대 셉테드* 사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2세대 셉테드 집약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0억 원이 투입되며 ▲혁신 셉테드 인프라 조성 ▲범죄 취약가구 방법시설 지원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셉테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특화 등 4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안심복합타운 구성도
출처: 부산시.(2022). 부산시, 전국 최초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추진! 1월 20일 보도자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등 5곳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생활 안전 취약지의 야간 보행로를 개선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안전 취약 수준 ▲시·군 및 주민참여 의지 ▲사업 내용의 타당성 ▲모범사례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지 5곳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별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환경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과정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설계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뿐 아니라 셉테드 전문가 조언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상남도, 2022년 안심골목길 사업대상지 3개소 선정

2015년부터 매년 3~5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올해 김해시 진례면 고모마을, 의령군 부림면 중동마을, 고성군 고성시장 뒤편 등 3곳을 새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LED 가로등 및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 안심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안심하고 24시간 걸을 수 있는 보행로가 만들어진다. 경상남도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범죄 발생률이 줄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행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